칼 럼

장 기 채 주 필

노인의 지혜 그리고 살아가는 비결

공자의 제자 자공이 한수(寒水: 한강의 옛 이름) 기슭을 지날 때 한 노인이 항아리에 물을 길어 밭고랑에 붓는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 이 광경을 보고 자공이 물었다. "어째서 양수기를 쓰지 않습니까?" 노인의 대답은 이러했다. "양수기를 쓰면 편리한 것쯤은 나도 잘 알고 있소, 그러나 한번 기계에 팔리면 순박하지 못하고 정신이 안정을 이룰 수 없어 마침내 도를 지킬 수 없습니다. 나는 양수기를 다룰 줄 몰라서가 아니라 하지 않는 것이오" 이 말을 듣고 자공은 부끄러워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도 그는 느리게 살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느림'은 개인의 자유를 일컫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노인은 지혜의 상징이다. 많은 일을 경험하며 말도 많지만 지혜도 많다. 초라한 겉모습을 싫어하기보다, 아름다운 지혜를 그 속에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을 보호할 줄 아는 사회는 복된 사회일 것이다. 어린아이들이 가정의 꽃이라면 노인은 지혜의 등불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들도 많다. 노년은 원숭이, 어린아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개처럼 살다 원숭이처럼 늙은 것은 서럽다. 그 서러움이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노여움이 되고 소신은 아집이 된다.

마이크를 잡아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 말이 많아질수록 주위에 사람은 점점 줄어든다. 오죽하면 '나이를 먹을수록 입은 닫고 지갑은 열라'고 했을까.

나이 들면 버려야 할 것만 있는 게 아니다. 배워야 할 것도 있다.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건배사 중에 '껄껄껄'이 있다. 몇 개의 서로 다른 풀이가 전해지지만 '좀 더 사랑할 걸, 좀 더 즐길 걸, 좀 더 베풀 걸'이 으뜸이다. 죽기 전에 '좀 더 열심히 일할 걸'으라고 후회하는 사람은 없다.

더 즐기고 사랑하지 못한 게 안타까울 뿐이다 사람은 태어날 때 두 손을 꼭 쥐고 있지만, 죽을 때는 반대로 두 손을 편다.

태어날 때는 세상 모든 것을 움켜잡아 가지고 싶지만 죽을 때는 가진 것을 다 내주어 빈소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 살 이라도 더 먹기 전에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즐기는 법을 배우고, 베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지만 이 나라 노인들은 지혜고, 버려야하고 할 겨를조차도 없다. 자식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이 더 많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단연 1위다. 좀 산다는 나라 가운데 노인이 가장 가난한 나라가 한국이다. '끼니를 걱정하는 노인들'은 바로 우리 이야기다.

어쨌든 불교의 설화 모음에 나타난 노인의 지혜는 끝없이 많다. 이제 백세시대의 멋있는 노년을 위해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노인이 사는 지혜를 터득해야 한다.

'논어' 자한 평에서 '공자는 4가지가 완전히 없었다(자절사: 子絶四)'고 했다.

4가지란 의(意), 필(必), 고(固), 아(我)다. 여기서 '의'는 근거 없는 억측이요, '필'은 무리하게 관철시키려는 자세요, '고'는 융통성이 없는 완고함, '아'는 오직 나만이라는 집착으로 풀이된다. 이 4가지가 없어야 성인이라 하니 범인으로서 이를 끊는 일이 또 얼마나 어려운지는 말할 것도 없다. 탈무드는 인간의 생애를 7단계로 설명했다.

한 살은 임금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 모시듯 비위를 맞춘다. 두 살은 돼지, 진흙탕 속을 마구 뒹군다. 열 살은 새끼 양, 웃고 떠들고 마음껏 뛰어다닌다. 열여덟 살은 말, 다자라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 결혼하면 당나귀,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가야 한다. 중년은 개,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사람들의 호의를 개처럼 구걸한다. 노년은 원숭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어린이와 똑같아지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늙은이가 되면 설치지 말아야 한다.

미운소리, 우는 소리, 헐뜯는 소리 그리고 군소릴랑 하지도 말고 조심조심 알려줘야 한다. 알고도 모르는 척 어수룩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편안하기 때문이다. 이기려 하지 말고 져주시구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니 한걸음 물러서서 양보하는 것 이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비결 아니겠는가.

社 說

사건처리 인권침해 없어야

경찰이 불법체포, 감금 등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행위의 징계 규정을 강화했다. 최근에도 문제가 된 성 관련 비위는 징계 수위를 대폭 높여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경찰청 예규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규칙상 징계 대상인 경찰관이 과거 훈장이나 포장, 국무총리 이상 표창을 받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됐다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공금 횡령·유용,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재산 관련 의무위반 행위는 감경 대상에서 제외됐다.

개정안은 여기에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 가혹행위를 추가해 직무와 관련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 수위를 낮추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아울러 사건 지연처리·보고, 확인 소홀, 허위·축소보고, 보고 누락 등 직무와 관련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거나 게을리하는 부작위·직무태만도 심각한 비위행위로 간주해 감경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성폭력은 종전에는 행위 정도에 따라 최하 수위인 견책까지 가능했으나 개정안에서는 해임 이상으로 대폭 상향했다. 성희롱은 상습이거나 피해자가 많으면 정직 이상, 미성년자나 장애인 대상 성매매는 해임 이상으로 수위를 올렸다.

상급자가 부하 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나 지시, 폭언 등을 하는 '갑질'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권적 행위'로 징계 항목에 공식 추가됐다. 행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을 띤 갑질 행위는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다.

경찰의 이번 조치가 인권침해 행위와 조직 내 갑질, 성 관련 비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인권경찰 시대에 부응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춤추는 관광버스 안전도 흔들

온갖 종류의 단풍이 물드는 바야흐로 가을축제 시즌이 도래했다. 매년 이맘때면 각 지역마다 다양한 단풍 행사들이 열리고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속도로에는 관광객을 태운 많은 관광버스의 운행 모습을 쉽게 보게 된다. 그리고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주와 가무를 즐기는 관광객들의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전국의 고속도로에는 100킬로미터의 아찔한 무도회장이 쉴새없이 열리곤 한다. 관광버스 내 커튼을 쳐서 내부를 가리고 노래방기기까지 설치하고 휘황찬란한 실내조명등을 밝힌 상태에서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 일어서서 일행과 어깨동무를 하며 소란스런 분위기에 취해 춤을 추는 광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아찔함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더욱이 지나친 흥겨움에 취해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띠도 착용하지도 않은 채 음악에 맞춰 차량 안을 이리 저리로 뛰어다니곤 한다.

술에 취한 승객들이 관광버스 내에서 노래와 춤을 추게 되면 운전자는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자연스레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게 되어 대형 교통사고라는 큰 위험에 처하게 된다. 따라서 출발 전에 승객들에게 달리는 버스 안에서 음주와 가무행위가 안전운전에 크게 방해가 된다는 사실을 관광객들에게 주지시키고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를 해야 한다. 자신과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관광버스내의 음주와 가무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관광버스 음주가무의 근절이야말로 성숙한 관광문화를 만드는 지름길임을 잊지 말자.

박병채 / 화순소방서 현장대응단 소방교

소방통로 확보하여 생명의 기적 창조하자

국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동차 등록대수는 2,100만대를 넘어섰으며, 전국적인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은 연간 4.5%에 달한다.

당연히 늘어난 자동차 수만큼 정체되는 도로구간도 많아지고,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자동차들이 무질서 하게 주차되어 긴급 출동하는 소방차량의 신속한 출동을 어렵게 하고 있다. 화재 및 심정지 환자 등 응급상황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초기 대응 시간을 소방에서의 '골든타임'이라고 한다.

화재 발생 5분 이내 현장 도착했을 때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고 초기진압에 가장 효과적이며, 심정지 환자 등 응급환자는 구급차로 4~6분 이내 응급처치를 받아야만 소생율을 높일 수 있지만 긴급차량에 대한 양보운전이 없다면 이러한 '골든타임'을 도로에서 보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언론을 통해 혼잡한 도로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에 진로를 양보해 귀중한 생명을 구하거나, 정체구간에서 소방차가 신속히 출동하도록 길을 터주었다는 '현대판 모세의 기적'을 접할 때면 가슴 훈훈하지만, 현실에서 '모세의 기적'을 기대하고 사이렌을 울리며 차량용 스피커로 방송까지 해도 미동도 없을 때는 힘이 빠질 때도 많고 아직 현실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낀다.

긴급차량에 대한 나의 양보운전은 내가 만드는 '골든타임'이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시간이기에 긴급차량이 주행할 때는 내가 먼저 양보하는 성숙한 국민의식과 '모세의 기적'이 당연시 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임명철 / 무안소방서 민원반장

신문으로 배우는 千 字 文

曠	빌	광
遠	멀	원
棉	솜	면
邈	멀	막

曠 遠 棉 邈

▷뜻 : 산, 벌판, 호수 등이 아득하고 멀리 그리고 널리 줄지어 있음을 말함.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湖南新聞
대표전화 (062) 224-5800
편집국 (062)222-5547
팩 스 (062)222-5548
광고국 (062)222-5544

본 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번지 정도프라자5층)
서울 취재 본부 : 서울특별시 노원구 하계1동 167-16 Tel (02) 2238-0003

명예회장 이신원 회장 정재조
발행·편집인 겸 부사장 최산순
총괄이사 논설실장 이홍재 편집국장 강서원

1946년 3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쇄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